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8년 6월호

통권 제 18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5월 교우소식

결 혼

- ♣ 김바울군(김용원장로 전덕길권사 2남)과
이주희양(이광태장로 강정녀집사 장녀)
10일(토) 오후 2시, 안동교회 예배당

별 세

- ♡ 고 허홍선 집사(이상혁 청년 모친, 50세)
2일(금) 별세 4일(장례)
- ♡ 고 이인희성도(이 철 집사 부친)
14일(수) 별세 16일(금) 장례.

이 사

- ♣ 추혜숙집사, 안국동 109번지.
- ♣ 조석훈교우, 종로구 원서동 4-4 상원빌라 B동 102호.

감 사

- ♣ 김수천 권사 · 최재왕 집사
4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박숙란 장로 · 백낙환 집사
11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김공환 집사 · 유연준 권사

25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이경복 집사

사랑의 온도계 캠페인 기념품(볼펜 1,000개)

출 국

- ♣ 강신자 권사

22일 자녀방문차 미국 출국

- ♣ 성지순례

5월 10일(토) ~ 5월 21일(수), 터어키 그리스 방문
(조정귀 강신자 조성행 신현자 유육근 윤복희 김방자
갈희선 오현숙 박선숙 장미화)

입 원

- ♣ 오정현 군

(오정섭집사·장문자장로 2남) 분당 차병원 524호.

성 경 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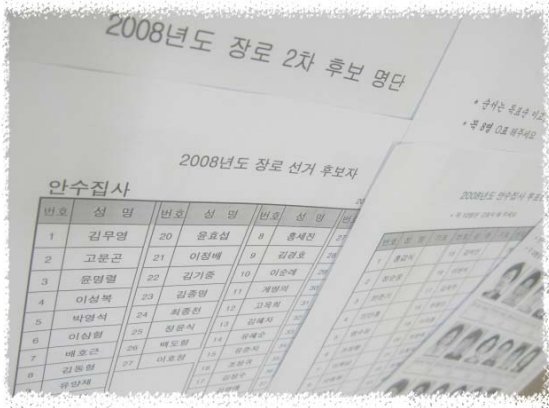
- ♣ 김윤성 집사

신구약성경 완필(2007.5.29 ~ 2008.5.5)

항존직 선거

장로 5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30인의 항존직
을 피택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5월 11일과 18일에
있었다. 1차 11일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에서 장로

는 총 유효투표수 303명중에 2/3인 202표 이상 득표자가 없었고, 안수집사는 방승주 집사(1명)가 299명의 과반수인 150표 이상을 득표 하였고, 권사는 조명자 양은선 최서섭 김방자 송화자 추옥희 정영란 한행자 이인희 황정렬 원광자 전정님집사(12명)가 284명의 과반수인 142표 이상을 득표하여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2차 18일 공동의회에서 실시한 향존직 선거결과 다음과 같이 피택 되었습니다.

1. 장 로 : 백종관 김희진(2명)
2. 안수집사 : 강석인 민만홍 이기주 이수형
이의홍 민동현 김군중 염수정(8명)
3. 권 사: 염영순 오현숙 장미화 이순옥 문경순
황정애 김종순 문애자 유명옥 김소진
권혜순 김순희 강재덕 김희동 이해봉
박경혜 이정자 유혜정 김영자A (1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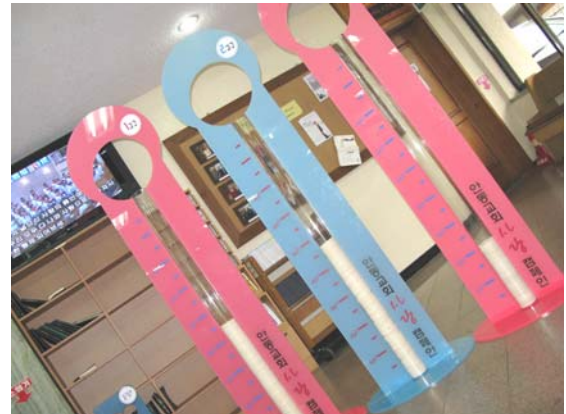
사랑의 온도계 캠페인

5월 한달 동안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 하는 말을 건네는 사랑 캠페인을 통하여, 모든 교우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교우들의 소감들입니다.

- “당신의 정성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소!”
- 큰 딸에게, “나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 내 마음 속의 부모님께 “하늘에 계시지만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부모님은 생전 그대로 계십니다. 아직도 컷전에 생생함을 어찌 잊으리오. 오늘은 카네이션을 묘소에 드리며 애통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 매일 보다시피 하는 친구들인데도, “너희를

만나 ,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썩스럽긴 했어요.

- 아이들에게 매일 한 가지 이상 칭찬해주려고 노력한다. 되는대로 많이 하려고 애쓴다.
- 친구를 만나 “사랑해, 너를 만나서 난 행복해!” 라고 간지럽지만 말했어요.
- 아버님, 어머님께 “오래 살아주셔서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지 4년이군요. 좋지만은 않던 세월이지만 제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썩스럽지만 반갑게, 친절하게 받았지요. “야! 너 왜 그렇게 친절해!” 라고 친구가 놀라더군요. “우리 교회 사랑의 캠페인 중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야 돼!” 하며 농담했지요. 아멘
- 아파트 주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안 그랬거든요!



사랑의 온도계 캠페인을 하면서

박노향 권사
평상시 긍정적인 말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수고가 많은 시네요, 결단력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야무지시네요, 등”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번 캠페인을 통하여 평소 칭찬을 잘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시간을 잘 지키시네요, 평소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하면서 한바탕 웃음보따리를 터트리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라도 뽑아오지” 하면서 서로가 가까워져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사랑의 온도계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여 주며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칭찬하는 분위기가 우리 가정과 교회, 온 나라에 널리 퍼져가기를 소망한다.

미얀마 소식

안녕하십니까? 이 곳 미얀마에서 안동교회에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미얀마 남부 에라와디주에서 양곤시로 강타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붕괴, 그리고 전신주 파괴,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곳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이 많은 이 때에 안동교회에서 5,604달러(\$)의 현금을 긴급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에 위 금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곳에 있는 저희들은 더욱더 힘을 얻고 사역에 열심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23일 오영환 선교사 드림.

5월4일 어린이주일

지난 5월 4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유치부에서는 작은 운동회가 열렸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께서 직접 우리 어린이들의 눈, 코, 입, 가슴 등에 입을 맞추며 축복 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곱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부모님 품 안에서 축복 받은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에 사랑과 평안이 넘쳐 보였다.

예배 후에는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작은 운동회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부모님들과 함께 워밍업으로 짝짓기 게임을 하며 마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빨강, 노랑 두 팀으로 나누어 판 뒤집기 게임과 터널 빠져나와 사탕 물기 게임, 가마타기 게임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한층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 땀을 흘려가며, 친구들과 몸을 부딪혀가며 게임에 몰두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을 맛본 우리 어린이들은 작은 천사 같았다.

게임이 끝난 후엔 다같이 간단한 식사를 하였

다. 부모님들이 준비해온 음식과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식탁 교제를 즐겼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떡을 떤 때 교제 하였듯이 우리도 식탁교제를 통해 더욱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식사 후엔 보물찾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주홍빛 보물 종이를 찾아 어른들은 옛 설레임을 맛보았고,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함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부모님 손 붙잡고, 선물을 한아름 안고 돌아가는 우리 안동 어린이들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뿌듯했고 몽글했다. 그들의 순수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작은 운동회를 준비하며 땀 흘린 많은 교사들께 박수를 보내본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순서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명달리 숲속 학교 체험

체험자: 신혜현 어린이

2008년 4월 12일 토요일 안동토요문화교실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 양평에 있는 명달리 숲속 학교에 갔다. 뽕나무 줄기로 목걸이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표고버섯 채취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명달리 숲속 학교에서만 있는 트럭도 타 보았다. 점심때는 맛있는 밥도 먹었다. 오므라이스와 김치도 있었고 단무지도 있었고 맛있는 국도 먹었다. 오므라이스가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을 정도였다. 썩도 캐었고 어린 버섯도 채취해서 집에 가지고 왔다. 내가 가져온 버섯으로는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다. 평소에는 버섯을 잘 먹지 않는데 내가 따 온 버섯이라 먹어보았다. 썩으로는 썩

버무리를 해서 먹었다. 썩 버무리는 밀가루나 쌀 가루를 속에 묻혀서 찌서 먹는 것이다. 맛은 없었지만 내가 가져온 썩이라서 조금 먹어보았다. 징검다리도 건너보았고,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계곡 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어 보았는데 진짜로 달고 맛이 있었다.

명달리 숲속학교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었다.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안내자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자연환경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아주 좋은 곳에 다녀온 것 같다. 5월 24일 토요일에는 전북 임실 치즈 목장에 간다고 했다.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느낀 점: 내가 아낀 자연은 바로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것 같다. 자연을 아끼고 보존해서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 해야겠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년부 성경공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서우석 안수집사

장신대 임희국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5월4일부터 6월29일까지 9차례 예정으로 <하나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성경공부>라는 주제로 창세기1장부터 3장까지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첫날인 5월4일에는 성경공부를 시작함에 앞서 <한국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그 후 계속된 강의는 창세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첫날 강의부터 40여명이상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으며 앞으로 많은 교우들과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아버이 잔치

권혜순 집사

안동교회의 아름다운 연례행사로 5월 11일 일요일 점심식사 후 윤상구 장로님 댁 정원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였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어서 예정시간 보다 40분 정도 늦었으나 맑고 밝은 날씨에 잔치에 참여하신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박은영 집사님이 이끄시는 국악을 어르신들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으셨고, 아버지 선물로는 장문자 장로님의 아이디어로 부채를 마련 하였습니다. 대나무 백선에 안동교회 직인을 찍었고, 최현 이정렬 선생님이 글씨를 쓰셨고, 오죽 공예가 최선희 선생님이 오죽부채고리를 만드시고, 또 오셔서 이름을 부채고리에 직접 새겼습니다.

아버이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믿음의 아버지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어 안동교회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부채를 부치실 때마다 성령의 바람을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채에는 여러 좋은 말들이 한글로 또는 한자로 썼습니다. 한문과 뜻풀이를 부침입니다.

居仁樹愛 (거인수애, 인자한 마음을 유지하여 사랑을 심음) 明哲保身 (명철보신, 밝고 밝게 몸을 지킴) 天道酬勤 (천도수근, 하늘의 도리는 부지런함에 응답하는 것) 據德樹愛 (거덕수애, 덕에 의거하여 사랑을 심음) 居敬窮理 (거경궁리, 공경하는 마음을 유지하여 이치를 연구함) 日新又日新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함) 言必信行必果 (언필신행필과, 말은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함) 言忠信行篤敬 (언충신행篤敬, 말은 충직하고 믿음직하게 하고 공경을 도탑게 함) 百忍堂中有太和 (백인당중유태화, 모든 것을 참는 집에 큰 평화가 있음) 自靜其心延壽命 (자정기심연수명, 스스로 그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 수명이 늘어남) 滿招損謙受益 (만초손겸수익, 가득 차서 넘치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음) 傳家有名德

教子以義方 (전가유명덕교자이의방, 집안에는 전해도는 유명한 덕행이 있고, 자식을 가르침은 인의와 법으로 함) 愛人生好友朋忘年紀樂青春 (애인생호우봉망년기락청춘, 인생을 사랑하고 친구를 좋아하며 나이를 잊고 청춘을 즐김)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중국, 미얀마에 긴급구호 실시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복구와 이재민 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에 본교단의 긴급구호가 실시됐다.

총회 사회봉사부(부장:윤의근 총무:김종생)는 지난 19일 제92회기 7차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를 갖고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지역과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지역에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부는 지난 20일과 23일 미얀마와 중국에 각각 실무자를 파송해 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각각 2천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봉사부는 본보에 총회장과 사회봉사부장 명의의 광고를 내고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교회의 사랑을 요청하며 전국교회들이 중국과 미얀마의 이재민을 돕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봉사부는 앞으로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며 피해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복구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총무 김종생 목사의 사임 표명에 따라 지난 16일까지 접수된 신임 총무 지원자들의 면접이 실시됐다. 면접 심사 후 실행위원들은 서류심사, 영어인터뷰, 면접 점수를 종합해 안광덕 목사와 이승렬 목사 2인을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서울여대에 여전도회 어머니들 사랑탑 우뚝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홍기숙)의 65연합회들이 지난 2007년부터 한마음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온 서울여자대학교(총장:이광자) 발전기금 모금이 결실을 맺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임원단을 비롯한 65연합

회 대표들은 지난 20일 서울여자대학교(총장:이광자) 제47주년 개교기념식에 참석해 기독교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여전도회 창립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제7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진행해 온 서울여자대학교 복지관 건축의 완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복지관 '학생누리관'은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신축 확장한 건물로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총학생회 및 동아리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학생생활연구소, 은행, 우체국, 편의점, 식당, 음악감상실, 소극장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주로 자리 잡고 있어 학생 복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서울여자대학교 이사장 이연옥명예회장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것에 감사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정성을 모은 여전도회원들과 동문, 교회, 교직원, 학부모들의 마음을 잊지 말고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식 후반에는 기부에 동참한 여전도회원들의 이름이 담긴 명판 제막식도 진행됐는데 여전도회

는 그동안 회원 1인이 5만원의 헌금에 동참하는 형태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날 행사에는 모금활동의 일선에서 수고해 온 지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원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했다. 여전도회 65연합회는 그동안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연합회별 목표를 정하고 바자회와 모금활동을 통해 기금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1일은 환경주일

총회는 사회봉사부(부장:윤의근 총무:김중생)는 지난 15일 환경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지구 온난화 확산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논쟁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총회와 교회의 바람직한 입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교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회는 환경주일을 맞아 전국의 교회들에 △'차 없는 주일' 지키기 △재생종이 사용 △나무 심기와 돌보기 등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교회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한반도 대운하 등 환경문제와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기독교 백주년예배

한국 최남단의 섬 제주, 태평양을 바라볼 때 제일 선두에 있는 곳은 제주도다. 때문에 '하멜표류기'로 유명한 하멜 일행과 최초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1832)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이미 백여 년 전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곳이다.

지리적으로 열방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던 이 땅에 1907년 4월 이기풍목사가 첫발을 내딛으며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로부터 1백년 후, 이 목사가 전도한 해녀 한 명으로 시작된 제주 기독교인은 이제 4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제주 기독교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1만8천의 신이 존재한다는 이 땅의 복음화율은 고작 7%대에 머무르고 있고, 전체 3백60개 교회 중 80%가 미

자립 영세교회로 분류된다.

때문에 은혜의 1백년을 맞은 제주 교회가 이제 희망의 1백년을 향해 "제주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까지"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본교단 제주노회 산하 교회들이 그 선두에 서서 지역민들을 품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본 교단만의 제주기독교1백주년 기념예배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주교회 교인들의 자축행사이기도 했지만 바리톤 서정학 씨 및 퓨전국악팀 '동화'의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주 '토박이'라면 누구라도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제주 방언으로 낭송했다.

한편 지역 선교의 일환으로 제주노회에서는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제주소아암재단을 건립 준비중이다. 그동안 불치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편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아동들을 위해 선교 1백주년을 맞은 제주 교회가 '빛진 자'의 심정으로 프로젝트를 가열차게 진행중이다. 25일 제주기독교1백주년 예배시 모아진 헌금 2천여만 원도 소아암재단 건립에 지원됐다.

5월 25일 총회 농어촌주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5일 본 교단 총회가 정한 농어촌주일을 맞았다.

총회 국내선교부(부장:김정동, 총무:진방주)는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 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태 총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농어촌은 한국 교회의 모태로, 목회적 돌봄과 관심이 절실한 곳"이라며, "한국교회가 전체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회장은 또 "농어촌 지역과 교회가 겪는 위기는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회장은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상생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초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회차원의 농어촌선교에 대한 비전을 밝

했다. 김 총회장은 "총회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목회를 감당해온 농어촌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농어촌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생명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광학원 고법 승소 판결

'개인의 종교 자유'에 앞서 기독교학교 설립 목적이 우선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곽종훈)는 지난

2005년 강의석씨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광학원이 승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광학원 측이 종교과목 이외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 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혀 종교교육과 개인의 신앙 자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립학교가 본래 종교적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데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 발현권과 사립학교의 설립 자유가 무색해졌다"면서 이번 책임을 대광학원에 있기보다 '사립학교 평준화정책'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학교들은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이 정당성을 얻었다며 고법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당사자인 대광고등학교 김광조 교장은 "기독교학교는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종교교육을 못하도록 한다면 설립 목적이 사라진다."면서 "이번 고법 판결은 개인의 종교 자유 보다 기독교학교 설립 목적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학교로서는 제자를 상대로 소송하는데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가능한 한 덮으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이 대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학교 전체에 미칠 파장 때문에 그만 둘 수 없었다."며 제자에 대한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광학원 명예이사장 이창로 장로(영락교회 원로)도 "기독교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했다"고 전제한 뒤, "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을 바로 봤다"면서 "대광학원

문제는 기독교학교 전체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독교학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법 판결만으로 종교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교단 소속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기독교학교연합회 김정섭 사무국장은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상충될 때, 법은 냉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고법 판결은 강 씨가 2년간 종교교육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손해배상이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기독교여자 절제회장, 덕수교회서 금주 강연

국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금주와 금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장이 나섰다.

지난 6일 방한한 사라 워드(Sarah Ward)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장은 평소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온 덕수교회 담임 손인웅 목사의 요청으로 7일 손 목사의 시무교회를 방문해 성도들 대상 '그리스도인과 음주(엡 5:18)'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라 워드 회장은 '태아 알코올 증독 증후군'에 대해 설명하며 임신 중인 여성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될 경우 △신생아 체중 저하 △비정상적 얼굴 윤곽 △신경계통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라 워드 회장은 "산모가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아기의 지능은 70%밖에 생성되지 못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면서 "완력을 행사하는 아동들에 의해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뇌와 안구 등이 형성되

는 임신 후 3개월 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제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을 때는 이미 늦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알코올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모의 경우 장기를 통해 해독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 무방비 상태로 1백% 흡수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사라 워드 회장은 "태아가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왜 가지고 태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불치병을 백퍼센트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뇌 기능 중 생각과 판단 능력을 담당하는 히포캠퍼스(Hippocampus)가 파괴돼 재생되지 않는다."면서 담배 또한 신장병, 중풍, 호흡곤란, 불임 등을 야기시킨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정연령이 21세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대한 기독교.여자절제회 조사에 따르면 음주에 따른 연령제한이 없는 국내의 경우 중고등학생 중 여자는 90%, 남자는 95% 이상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 워드 회장은 "그들이 결혼해서도 술을 마시게 된다면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이웃, 특히 가임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금주 금연할 것을 권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말했다.

장신대 오르간 설치한 쿤 사

장신대 파이프오르간을 제작한 스위스의 쿤 사(社)의 오르간은 스위스 취리히의 콘서바토리 연주홀, 독일 뮌헨 국립음대 연주홀, 에센 필하모니 함부르크 요한네스 교회, 쾰른 성 쿠니베르트 교회 등 유럽의 중요한 연주장과 교회에 설치되어 있다

이 밖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가와사키 심포니홀, 오사카 ABC 아사히 방송국 심포니홀, 동경 오페라 시티, 가와구치 리리아 음악홀 등에 설치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장신대 환경직기념예배당이 유일무이한 쿤 사의 오르간이다.

특히 쿤 오르간은 프랑스 심포니 오르간 제작으로 명성이 높지만 독일 옥센하우젠의 성 게오르크 수도원 교회와 바인가르텐의 가블러 오르간 등 바로크 오르간을 복구한 경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밥상공동체 11회째 풍성한 어버이날 행사

"손자가 꽃 달아주고, 아들이 발 씻겨주고, 며느리가 양말 신겨주는 것 같아." 김순자 할머니(81세)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지난 8일, 누구 하나 찾아오는 가족 없이 홀로 쓸쓸히 보낼 독거노인들을 위해 원주 밥상공동체(대표:허기복)가 어버이날 잔치를 마련했다.

11회째, 매년 어김없이 진행된 밥상공동체의 어버이날 행사는 올해 '사랑의 세족식과 풍성한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다.

세족식에서는 허기복 목사를 비롯해 이날 후원 및 자원봉사에 나선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과 SKT 중부 행복나눔 등 기업 중진들이 직접 아들,딸이 되어 행사에 참여한 3백여 노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연세대 사회봉사 리더십 수강생들은 손주 되기를 자청하며 직접 만든 카네이션 꽃을 노인들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밥상공동체 김진선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자녀 손주 삼아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정말 기쁜 날이었다."면서 "내년에는 사랑의 향기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독거노인들을 향해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가

2008년 6월호 · 통권 제181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중 혁

발행일 : 2008년 6월 1일